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 받는 괴로운 소리를 육을 통해 노래로도 나타내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괴로운 심정을 육을 통해 행실로도 나타낸다. 그 지겨운 소리를 듣기 싫어 온종일 귀를 막고 살았고, 잘 때도 귀를 막았다. (지겨운 구내방송 노래들이다. 모두 지옥 고통의 결과체다.)

2. 자기 영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이 마음을 통해 육으로 전달되어 육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운데, 사람은 모르고 산다.

3. 지옥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가는 곳이 아니다. 육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자를 진실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 쪽에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영향을 받아 마음도 고통을 받고 육도 고통을 받는다.

4. 너를 창조하시고 네가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것의 반만 사랑했어도 네 영이 지옥에는 안 갔다.

5.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각각 100% 사랑해 주면서 도와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10%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랑의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

6. 구원받지 못한 영이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영계 대기소에 거한다. 거기서 지상에서 육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고통 받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다 거기서도 자기 영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운명이 기울어진다.

7.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아니한다.

8. 제대로 알고 행해야 수고해도 이루어진다.

9. 모르고 100년 믿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1년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 ‘재창조’란,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재창조를 안 하면 인간의 육이 결국 세상에 흠으로 끝나듯이, 그 영은 흑암 지옥에서 끝난다.

11. 인간을 재창조하지 않으면 짓다 만 집과 같고, 열다 만 과일나무 열매 같다.

12. 인간의 육 창조는 영의 재창조를 위해서다.

13. 재창조는 ‘생명 구원’이다.

14.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재창조시킨 자는 참으로 귀한 자로서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 그 육과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다.

15. 재창조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역사요, 신앙 역사요, 구원역사다.

16. 재창조 역사는 1차 &#8211; 2차 - 3차로 차원을 높여 구약 &#8211; 신약 - 성약으로 완성하였다.

17. 재창조의 마지막 기간은 성약역사 기간이다.

18. 1000년 성약역사는 마지막 재창조 기간이다. 구원역사의 완성 기간이다.